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Group Home Adolescents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석사 이슬기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부교수 양성은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Master : Seulki Lee

Associate Professor : Sungeun Yang

목 차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References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p home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A survey was carried out on a total of 24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 in group homes. For data analysis, *t*-test,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reliability coefficients were carried out by using SPSS program(version 18.0).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ability of group home adolescents, depending on the grade and gender. Second, there was an interaction by grade and gender in school adjustment of group home adolescents. Last,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affected their school adjustment.

주제어(Key Words) : 그룹홈(group home), 청소년(adolescents),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학교적응성(school adjustment)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Yang,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 253 You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117 Fax: +82-32-865-5228 E-mail: syang@inha.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1년 대한가정학회 제64차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수정보완함.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 구조 및 가정의 기능,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자녀들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 사회에 밀어닥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기가 아동에게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정해체의 급증을 들 수 있는데, 가정해체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설보호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이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시설보호와 위탁 가정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장 보호제도 같은 지역사회보호를 통해서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해왔다. 과거 요보호아동이 대부분이었던 시기에는 요보호 아동의 수가 많아 대규모 시설보호가 필요했었지만 최근 발생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시설은 가정적인 환경에서 적은 인원들의 요보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랜 기간 시설보호를 받은 아동들은 집단적 보호에서 가해지는 획일적 규칙, 강요, 사회적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고(Lee, 1998), 요보호아동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 이미 깊은 심리·정서적 상처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가정적인 환경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서비스 방안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호서비스 방안의 하나로 새롭게 아동복지 시설화 모형의 대안으로 그룹홈이 크게 대두(Lee, 2000)되어 그 수가 현재 급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에 1,990세대로 확대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그룹홈은 소규모 주거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시설보호와 가정위탁보호의 장점을 살린 소규모 가정형 아동복지 서비스의 모형으로 가정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No, 1998).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은 대부분이 상처를 받았거나 보호자의 학대, 방임, 이혼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정서문제와 행동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Jo, 1999)고 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단순히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을 해주는 것(Lee, 2000; M-H. Lee, 2002)도 그룹홈에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홈 아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그룹홈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Lee, 2006), 독서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Lee, 2005),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Kang, 2003)가 있고, 그 외에 그룹홈 아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의 연구에서 진행되어 온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청소년의 개인특성(성, 학년,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등), 가족특성(가족구조, 가족응집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 등), 친구 및 교사관계, 학교생활 등의 관련변인들이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들이었다(Jung & Moon, 2007; Kim, 2005; Lee, 1999; Lee & Lee, 2004; Park, 2001). 학교적응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적응과 다양한 심리학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Lee, 2005). 그러나 최근에 들어 적응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서적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적응과 정서지능 전반의 관계에 관한 연구(Foster & Vorbach, 2003; Goleman, 1996; Kwon, 2003; Lee, 2007; E-S. Moon, 2005)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소한 일상의 경험에서부터 삶을 좌우하는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서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다. 과거 정서의 개념은 느낌, 정동, 기분 등의 용어와 혼동되어 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대한 생리적이거나 행동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적인 상태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Kim, 1995).

정서지능은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인 관계 문제에 그것을 적용하여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다(Y-R. Moon, 2005).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적응행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Hwang, 1998; Im, 2001)은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사회성이 좋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으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Im, 2003; Lee, 2006; Suh, 2003). 사회성이나 심리적 안정감이 학교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서를 인식하는 정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부정적 정서를 느꼈을 때, 정서를 조절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정서적 결과로 변환시킬 능력이 없다면 정서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정서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즉 정서인식의 정도는 그 자체로서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 안정감을 가져온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대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전제요소가 되는 것이다. 정서 조절에 대한 연구 역시 지난 십여 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은 정신 병리와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Bonanno, 2001). 또한 정서에 대한 다양한 조절 양식은 그 방법과 상황, 경험하는 정서에 따라 효과

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하다 (Gross, 2001).

정서인식과 정서조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며, 정서조절양식 그리고 그룹홈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하루 일과의 절반을 차지한다. 청소년기의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룹홈 청소년들은 가정환경,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정서조절능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고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규명하여 그룹홈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정책수립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그룹홈 청소년의 학교적응성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그룹홈 청소년의 특성

그룹홈이란 소규모 집단을 뜻하는 그룹과 집, 가정, 수용 시설 등을 뜻하는 홈이 결합된 것으로 소규모 집단이 사는 집 또는 시설이다. 그룹홈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정폭력 및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해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5~7명 정도의 아동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2명의 생활교사와 함께 가정적 분위기에서 양육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이다.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 형태로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인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정보호와 다르고, 시설장 및 총무 등 행정관리체계의 시설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설보호와 구분이 된다(Lee, 2000). 그룹홈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계획된 집단생활 및 프로그램과 특별한 서비스가 결합하여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비혈연 관계의 아동들이 성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룹홈의 기능과 역할은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보호와 양육, 치료활동, 학교생활 적응, 문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Lee, 2000) 그룹홈은 부모의 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로 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아동이나 가정폭력, 학대 등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 가출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되도록 하는 보호시설이다. 그룹홈은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를 통해 사회성을 습득하고 요보호아동이 비행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이 기본적 욕구와 심리상태를 사정하여 상처받은 아동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개별치료 또는 집단치료의 장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Lee(1997)는 그룹홈은 대안의 가정으로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가정을 제공한다는 점과 대안의 복지시설이고 치료 공간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룹홈은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하며 그들의 기본적 욕구와 심리상태를 사정하여 상처받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마음을 개별치료 또는 집단치료의 장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룹홈 환경의 장점은 아동이 시설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도되거나 보고된 것이 없다. 즉, 그룹홈 아동과 관련하여 문제행동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그룹홈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지원체제 프로그램의 제공과 그룹홈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그룹홈에 입소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빈곤과 이혼 등에 의한 결손이나 방임, 학대가정에서 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문제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빈곤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서는 불안정해지는 등 부모세대가 빈곤 등의 문제가정일 때 그 자녀세대의 1/3은 문제가정으로, 그리고 또 다른 1/3은 문제가정 소지가 큰 위험가정이 된다는 미국의 한 연구결과가 소개되기도 했다(Kim, 2004).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사회적 특성에 대해 Norton(1981)은 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초기에는 부모와 이전생활에 대한 상실을 부정하고 점차적으로 그 현실에 직면하고 궁극적으로 그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재통합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고 하였다. 첫째, 충격의 단계로 그룹홈에 배치되면서 명백한 문제행동을 통해 반응하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어떤 청소년들은 전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신

체적 또는 언어적 문제행동도 보이지 않으며 표면상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관여가 전혀 없는 반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둘째, 항의의 단계로 분리경험에 의한 불안, 분노, 무력감, 비판의 감정을 경험하며, 친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셋째, 절망의 단계로 무감각 상태와 내적인 고통과 우울 절망감의 표현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청소년의 활동에 목적이 없고 혼란스러우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가 거의 없는 퇴행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넷째, 분리·이탈의 단계로 그룹홈에서의 적응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이혼과 같은 가정환경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행동문제는 불복종, 반항적인 행동, 학업성적의 하락과 학교에서의 적응의 어려움, 심한 우울과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2. 정서조절능력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정서를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고, 정서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한다. 정서경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서조절의 필요성을 언제나 느끼고,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물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Min, 2000). 정서조절이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서조절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아직까지 연구자들간의 정서조절에 대해 합의되거나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없다.

연구자에 따라서 “유쾌한 정서를 극대화하고 불쾌한 정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들”(Westen, 1994), “정서를 다루는 전략들”(Morris & Reilly, 1987),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Kopp, 1989),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절차들”(Gross, 1998)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또한 Mayer와 Salovey(1990)는 정서조절을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조절할 줄 아는 것으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유능함에 직접 영향을 주어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정서조절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것은 소위 쾌락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정서조절이 단순한 것은 아니며 개인이 처한 상황과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을 위해서 개인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방법의 선택이 중요함을 의미한다(Im, 2003).

Parkinson(1996)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200여개의 정서조절방법들이 크게 인지적 차원 대 행동적 차원과 회피/분산적 차원 대 능동/수용적 차원에 따라 나눌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Gross와 John(2003)은 정서조절양식을 크게 선행사건 초점적 (antecedent-focused) 양식과 반응 초점적 (response-focused) 양식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사건 초점적 양식은 정서 반응 경향성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취하는 것으로 인지적 재평가(cognitive-reappraisal)가 대표적이며, 반응 초점적 정서조절양식은 정서 반응 경향성이 활성화된 후에 취하는 것으로 억제가 대표적이다. Gross와 John은 인지적 재평가와 억제를 중심으로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정서조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모델은 정신 병리를 정서조절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자들에게 많은 주목과 지지를 받고 있다(Son, 2005).

Yun(1999)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들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방법과 회피적이고 주의분산적인 대처 방법으로 구분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에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대처 방법을 추가하여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그는 경험적인 자료를 요인 분석하여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들이 능동적 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세 가지 조절양식과 삶, 건강, 대인관계에서의 만족을 측정한 결과 능동적 조절양식은 삶, 건강, 대인관계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삶, 건강, 대인관계 모두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정서의 종류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차이를 본 후속연구(Min, 2000)에서는 능동적 조절양식은 전반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조절양식으로 분노와 불안, 부끄러움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고 불안을 조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상대적으로 슬픔을 조절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분노나 부끄러움을 조절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지만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K-S. Lee(2002)의 정서의 종류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분노조절에는 능동적 조절양식과 지지추구적

조절양식, 슬픔 조절에는 지지추구적 조절양식, 불안과 수치심에는 능동적 조절양식이 각각 효과적이었다. Im(2003)은 정서조절양식이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심리적 안녕을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연구에서, 능동적 조절양식과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의 경우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고,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한 후 그에 따른 조절노력이 있을 때 안녕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혀졌다. Lee, Lee와 Shin(2005)의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능동적 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의 순서대로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Jung, Lee와 Yoo(2006)의 정서조절양식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능동적 조절양식은 생활만족에 정적 영향을, 회피-분산 조절양식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지추구 조절양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학교적응성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 사이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과정이며, 개인의 요구·갈등·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정도라고 할 수 있다(Kim, 1993). 학교환경은 초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중요한 가정 밖의 환경(Cicchetti & Lynch, 1977)으로,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격을 형성하고 적응하였으나 학령기 이후에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된다. 이 시기에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적응의 기술을 습득케 하고 인생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인간관계를 확립하고 사회적인 기능과 법칙을 배울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Cho, Choi, Choi, Kwak, & Lee, 1999). 특히, 청소년기에 이르러 중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느냐의 여부가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Lee, 1999),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ierman(1994)은 학교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그 집단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 Coleman, Kochenderfer와 Ladd(1996)은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학교적응을 설명하여, 아동의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과 감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Min(1995)은 아동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에 있어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 적응으로 정의하였으며, Kim과 Moon(2002)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현적·내현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Kim(2000)는 학교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학교생활·학교 내 친구와의 관계·교사와의 관계·학교 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상황의 제반 요구에 잘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에서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성공적 혹은 비성공적인 시도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Berndt와 Keefe(1995)는 학교 적응은 복잡한 양상을 가진 광범위한 구성개념이라고 전제하고,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수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 적절한 수업행동, 특히 방해되는 행동의 부재, 그리고 성적표로부터 판단된 학업성취의 세 가지 측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였다. Bierman(1994)은 학교 적응을 학업적 적응, 행동적 적응, 사회·정서적 적응으로, Fine, Kurdek과 Sinclair(1995)는 학업성적, 기초 지식에 대한 성취도,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였으며, DuBois, Eitel과 Felner(1994)는 학업성적, 학교출석, 학습에 관련된 자아개념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Kim(2002)은 수업참여도, 사회적 적응행동, 정의적 적응행동으로 분류하였으며, Lee(2005)는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기본영역으로 설정하고 학업 유능감,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 협조성, 교사호감, 교사친밀감, 질서/규칙 준수, 학교생활 만족의 하위차원의 요인들을 밝혀냈다. Kim(2000)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및 학교생활적응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학교 적응을 설명한 바 있다.

학교환경적응은 학습자가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환경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해 가는 정도를 의미하고, 학교교사적응은 학습자가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교사에게 적절하게 조절하며, 교사와의 관

계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가는 인간관계의 정도를 의미한다. 학교수업적응은 학습자가 학교의 수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유발하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학교친구적응은 학습자가 학교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유발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해가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은 교내의 규칙과 질서·각종행사·시설물의 활용·준비물의 지참·교내 홍보와 게시물의 확인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학습자 개인에게 유발하는 여러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가는 정도를 말한다.

선행되었던 연구결과를 보면, 성에 따라서는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05). 학년에 따른 결과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No, 2005; Yoon, 2005). 학년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핀 Jung과 Moon(2007)은 교사관계와 학교생활에서 저학년일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hae(2004)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im(2002)는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 여부에 따른 학교적응 연구에서 Bae(2003)는 양친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적응이 높게 나왔으며, 학교적응의 하위차원인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에서 양친이 모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가 편부, 편모 가정보다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과 주변 환경에 의한 학교적응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청소년 개인의 부적응 상태인 정서조절에 따른 학교적응 연구는 미흡하고, 더구나 일반 청소년이 아닌 그룹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룹홈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2. About an object of average from all over the country group home in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N = 246)

| Area | Seoul | Gyeong-gi | In-cheon | Bu-san | Dae-gu | Gwang-ju | Total |
|------|---------------|----------------|--------------|---------------|--------------|--------------|--------------|
| ① | 35/135(25.9%) | 77/214(35.9%) | 7/34(20.5%) | 37/65(56.9%) | 25/47(53.2%) | 15/32(46.8%) | |
| Area | Gangwon-Do | Chung Chong-Do | Jeolla-Do | Gyeongsang-Do | Jeju-Do | | 246/818(30%) |
| ② | 0/46(0%) | 15/93(16.1%) | 14/98(14.3%) | 16/43(37.2%) | 5/11(45.4%) | | |

Note. ①, ② A number of middle & high school student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 246명이였다. 전국 348개소 그룹홈에 중·고등학생은 818(중학생 518명, 고등학생 300명)명이 입소 중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전국 그룹홈에 전화로 설문지 승낙을 받은 후,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우편으로 설문지를 거두는 방법으로 총 2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고 250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완전한 자료 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연구 자료로 활용한 질문지는 246부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성과 학년별, 지역별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Table 1과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그룹홈 남학생 110명, 여학생이 136명이였다. 학년별로는 중학생 164명, 고등학생 82명이였다.

Table 1. An object of study in gender and grade distribution (N = 246)

| Category | Boy | Girl | Total |
|---------------|------------|------------|------------|
| Middle school | 73(44.5%) | 91(55.5%) | 164(66.7%) |
| High school | 37(45.1%) | 45(54.9%) | 82(33.3%) |
| Total | 110(44.7%) | 136(55.3%) | 246(100%) |

연구대상의 지역별 인원내에 대한 분포는 서울 지역 총 135명 중 35명, 경기 지역 총 214명 중 70명, 인천 지역 총 34명 중 7명, 부산 지역 총 65명 중 37명, 대구 지역 총 47명 중 27명, 광주 지역 총 32명 중 20명, 충청도 지역 총 39명 중 15명, 전라도 지역 총 98명 중 14명, 경상도 지역 총 43명 중 13명, 제주도 지역 총 11명 중 8명의 그룹홈 청소년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그룹홈 청소년은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2. 연구도구

1) 정서조절능력

본 척도는 Yun(1999)이 개별 정서 경험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선택과 효과성을 살피기 위해 개발한 “정서조절양식 체크리스트”를 Im(2003)이 수정한 것이다. 척도는 25문항으

로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하위척도는 능동적 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다. 능동적 조절양식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느낌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보이는 조절양식을 말한다.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문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이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는 조절양식이다. 정서조절양식의 전체 신뢰도는 .784, 능동적 조절양식은 .801,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822,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794로 나타났다.

2) 학교적응성

학교적응성에 대한 척도는 Kim(1993)가 제작한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1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성의 하위영역은 크게 5개의 영역으로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되어있다. 총점의 범위는 41~2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학교적응성의 전체 신뢰도는 .775, 학교환경적응은 .801, 학교교사적응은 .788, 학교수업적응은 .811, 학교친구적응은 .789, 학교생활적응은 .80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10년 7월에 그룹홈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7월 25일-9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섭외를 위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룹홈 연락처에 전화로 해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 프로그램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그룹홈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성과 학년에 따라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과 학년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그룹홈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그룹홈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룹홈에 거주한 기간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룹홈에 같이 거주중인 친형제는 없다는 결과가 58.5%로 나타났다. 그룹홈에 들어오게 된 이유로는 부모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이 어려워져서 들어오게 된 이유(37.8%)가 가장 높았으며, 그룹홈 입소 경로는 시청(동사무소)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31.1%)가 가장 높았다. 부모 여부에서는 부와 모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59.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나 친척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청소년은 71.1%로 나타났고, 부모나 친척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청소년은 28.9%로 나타났다.

Table 3. General character of group home adolescents (N = 246)

| | | |
|--|---|------------|
| Residence period | 1 year over - 3 years under | 108(44.3%) |
| | 1 year under | 57(22.8%) |
| | 3 years over - 5 years under | 46(18.7%) |
| | 5 years over | 35(14.2%) |
| Siblings exist in Group Home | No | 144(58.5%) |
| | Yes | 102(41.5%) |
| Causes | Parents personal problem | 93(37.8%) |
| | Parents' divorce etc. | 46(18.7%) |
| | Father or Mother decease | 27(11%) |
| | Poverty | 14(5.7%) |
| Means of acquisition | Through the city hall (dong office) | 76(31.1%) |
| | Through the shelter | 67(27.4%) |
| | Through the relative | 46(18.7%) |
| | Though the parents etc. | 22(9%) |
| Parents exist | All exist | 146(59.3%) |
| | Father exist | 50(20.3%) |
| | Mother exist | 33(13.4%) |
| | Parents death | 17(6.9%) |
| Contact / Meet parents / Relative exist | Yes | 175(71.1%) |
| | No | 71(28.9%) |
| Contact with parents /Reason why don't meet with parents | Don't want to meet | 125(50.7%) |
| | Parents didn't contact me first etc. | 45(18.3%) |
| | Don't know where parents live | 31(12.7%) |
| | Group Home teachers don't want me to meet parents | 0(0%) |

2. 그룹홈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성과 학년에 따라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이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룹홈 청소년의 학년과 성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Table 5, 상호작용효과 그림은 Figure 1과 같다. 성에 따른 주 효과는 회피-분산적 조절양식($F = 4.76, p < .05$), 지지추구적 조절양식($F = 11.51, p < .001$)에서 나타났고, 학년

에 따른 주 효과는 능동적 조절양식($F = 6.04, p < .05$), 회피-분산적 조절양식($F = 4.81, p < .05$)에서 나타났다. 즉, 성에 따라 회피-분산적 조절양식과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차이가 있게 나타났고, 학년에 따라 능동적 조절양식과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는 지지추구적 양식($F = 6.35, p < .05$)에서

Table 4.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emotion regulation average & standard deviation (n = 246)

| Measurement variable | Middle school student | | | High school student | | |
|----------------------|-----------------------|-----------------------|--------------------|----------------------|-----------------------|-------------------|
| | Boy(n = 73) m(sd) | Girl(n = 91) m(sd) | Total (n = 164) | Boy(n = 37) m(sd) | Girl(n = 45) m(sd) | Total (n = 82) |
| ① | 2.16(.57) | 2.13(.46) | 2.14(.51) | 2.23(.54) | 2.42(.59) | 2.33(.58) |
| ② | 2.29(.55) | 2.43(.51) | 2.36(.53) | 2.12(.52) | 2.29(.38) | 2.21(.46) |
| ③ | 2.26(.66) | 2.33(.62) | 2.30(.64) | 2.06(.62) | 2.57(.65) | 2.34(.68) |

Note. ① Positive regulation ② Avoidance dispersive regulation ③ Support seeking regulation

Table 5.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emotion regulation of two-way ANOVA (N = 246)

| Category | | SS | df | MS | F |
|----------------|---|--------|-----|-------|----------|
| Gender | ① | .313 | 1 | .313 | 1.08 |
| | ② | 1.225 | 1 | 1.225 | 4.76* |
| | ③ | 4.76 | 1 | 4.76 | 11.51*** |
| Grade | ① | 1.74 | 1 | 1.74 | 6.04* |
| | ② | 1.24 | 1 | 1.24 | 4.81 |
| | ③ | .024 | 1 | .024 | .05 |
| Gender * Grade | ① | .683 | 1 | .683 | 2.37 |
| | ② | .007 | 1 | .007 | .03 |
| Error | ③ | 2.627 | 1 | 2.627 | 6.35* |
| | ① | 69.667 | 242 | .288 | |
| | ② | 62.3 | 242 | .257 | |
| Total | ③ | 100.01 | 242 | .413 | |
| | ① | 72.427 | 245 | | |
| | ② | 64.862 | 245 | | |
| | ③ | 105.77 | 245 | | |

Note. ① Positive regulation ② Avoidance dispersive regulation ③ Support seeking regulation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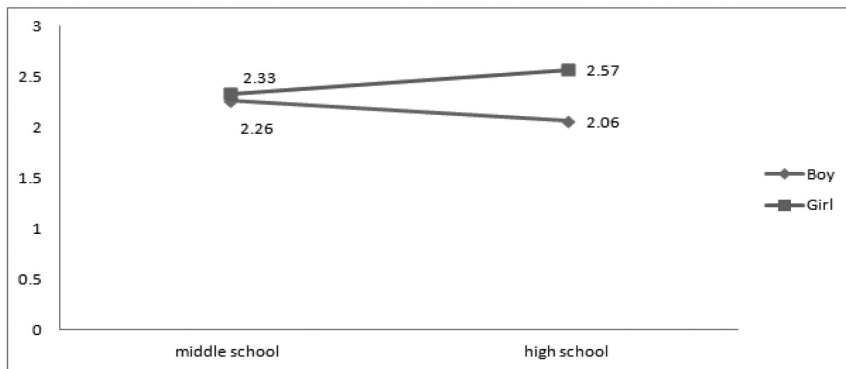


Figure 1.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support seeking regulation.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낮아지고 여학생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Figure 1과 같이 중학교 남학생($m = 2.26$)은 학년이 높은 고등학생($m = 2.06$)이 되면서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낮아지고, 중학교 여학생($m = 2.33$)은 학년이 높은 고등학생($m =$

2.27)이 되면서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높아진다.

3. 그룹홈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성

성과 학년에 따라 그룹홈 청소년의 학교적응성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룹홈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른

Table 6.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school adjustment average & standard deviation (N = 246)

| Measurement variable | Middle school student | | | High school student | | |
|------------------------------|-----------------------|---------------------|-----------------|---------------------|---------------------|----------------|
| | Boy (n = 73) m(sd) | Girl (n = 91) m(sd) | Total (n = 164) | Boy (n = 37) m(sd) | Girl (n = 45) m(sd) | Total (n = 82) |
| Adjust to school environment | 2.58(.49) | 2.41(.59) | 2.48(.55) | 2.29(.48) | 2.42(.60) | 2.46(.55) |
| Adjust to school teacher | 2.66(.58) | 2.70(.64) | 2.68(.61) | 2.41(.68) | 2.66(.62) | 2.55(.65) |
| Adjust to school class | 2.34(.47) | 2.37(.48) | 2.35(.47) | 2.16(.56) | 2.38(.54) | 2.28(.56) |
| Adjust to school friend | 2.49(.45) | 2.49(.49) | 2.49(.47) | 2.36(.47) | 2.46(.42) | 2.42(.45) |
| Adjust to school life | 2.79(.47) | 2.90(.41) | 2.85(.44) | 2.66(.57) | 2.81(.55) | 2.74(.56) |

Table 7.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school adjustment of two-way ANOVA (N = 246)

| Category | SS | df | MS | F | |
|----------------|--------------------|--------|-----|-------|-------|
| Gender | School environment | .028 | 1 | .028 | .09 |
| | Teacher | 1.079 | 1 | 1.079 | 2.73 |
| | Class | .801 | 1 | .801 | 3.14 |
| | Friend | .158 | 1 | .158 | .71 |
| | School life | .871 | 1 | .871 | 3.68 |
| Grade | School environment | 1.009 | 1 | 1.009 | 3.27 |
| | Teacher | 1.126 | 1 | 1.126 | 2.84 |
| | Class | .378 | 1 | .378 | 1.48 |
| | Friend | .262 | 1 | .262 | 1.18 |
| | School life | .714 | 1 | .714 | 3.01 |
| Gender * Grade | School environment | 1.290 | 1 | 1.290 | 4.19* |
| | Teacher | .539 | 1 | .539 | 1.36 |
| | Class | .471 | 1 | .471 | 1.84 |
| | Friend | .151 | 1 | .151 | .68 |
| | School life | .017 | 1 | .017 | .07 |
| Error | School environment | 74.525 | 242 | .308 | |
| | Teacher | 95.653 | 242 | .395 | |
| | Class | 61.734 | 242 | .255 | |
| | Friend | 53.344 | 242 | .220 | |
| | School life | 57.268 | 242 | .237 | |
| Total | School environment | 76.943 | 245 | | |
| | Teacher | 97.895 | 245 | | |
| | Class | 63.01 | 245 | | |
| | Friend | 53.804 | 245 | | |
| | School life | 58.884 | 245 | |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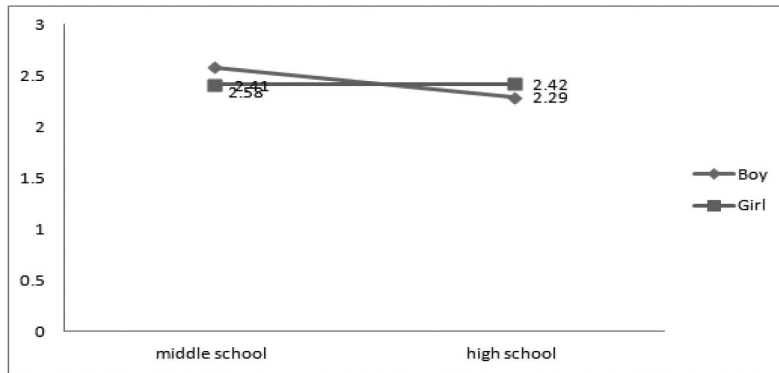


Figure 2. Gender and grade according to school environment.

학교적응성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6,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Table 7, 상호작용효과 그림은 Figure 2와 같다. 성과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학교환경적응($F = 4.19, p < .05$)에서 나타났다.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환경적응 정도가 낮아지고, 여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환경적응 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Figure 2와 같이 남자 중학생($m = 2.41$)은 학년이 높은 고등학생($m = 2.29$)이 되면서 학교환경적응 정도가 낮아지고, 여자 중학생($m = 2.58$)은 학년이 높은 고등학생($m = 2.42$)이 되면서 학교환경적응 정도가 높아진다.

4.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의 관계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능동적 조절양식은 학교교사적응($r = .170, p < .01$), 학교수업적응($r = .279, p < .01$), 학교친구적응($r = .198, p < .01$), 학교생활적응($r = .158, p < .05$)에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능동적 조절양식이 높을수록 학교교사적응 정도, 학교수업적응 정도, 학교

친구적응 정도,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학교교사적응($r = .127, p < .05$), 학교생활적응($r = .184, p < .01$)에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수업적응($r = -.133, p < .05$)에서는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을 하지 못할수록, 학교교사적응 정도,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낮았고, 학교수업적응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학교교사적응($r = .300, p < .01$), 학교수업적응($r = .145, p < .05$), 학교친구적응($r = .254, p < .01$), 학교생활적응($r = .280, p < .01$)에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을 잘할수록 학교교사적응 정도, 학교수업적응 정도, 학교친구적응 정도,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의 하위변인 중 학교환

Table 8.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group home adolescents (N = 246)

| Variable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 ① | 1 | | | | | | | |
| ② | .189** | 1 | | | | | | |
| ③ | .555** | .371** | 1 | | | | | |
| ④ | .103 | -.033 | .099 | 1 | | | | |
| ⑤ | .170** | .127* | .300** | .547** | 1 | | | |
| ⑥ | .279** | -.133* | .145* | .468** | .392** | 1 | | |
| ⑦ | .198** | .004 | .254** | .609** | .469** | .752** | 1 | |
| ⑧ | .158* | .184** | .280** | .359** | .584** | .442** | .446** | 1 |

Note. ① Positive regulation ②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③ Support seeking regulation ④ School environment ⑤ Teacher ⑥ Class ⑦ Friend ⑧ School life

* $p < .05$, ** $p < .01$.

Table 9.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emotion regulation effect on teacher adjustment (N = 246)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B | β | R ² | F |
|--------------------|---------------------------------|-------|---------|----------------|----------|
| Teacher-adjustment | Constant | 2.076 | | .104 | 5.568*** |
| | Gender | .047 | .037 | | |
| | Grade | -.154 | -.115 | | |
| | Positive regulation | .038 | .032 | | |
| |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 -.005 | -.004 | | |
| | Support seeking regulation | .270 | .281*** | | |

*** $p < .001$

정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와 제시하지 않았다. 공선성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공차한계(Tolerance)와 VIF 계수를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가 작거나(< 0.1) VIF 계수가 크면 (> 10)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모형에서 공차한계는 0.1 이상이었고, VIF 계수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가 .70 이하로 확인되어 회귀분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교사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교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beta = .281, p < .001$)이 학교교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지추구적 조절을 잘할수록 학교교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10.4%로 나타났다.

2)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수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수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는 보면 Table 10과 같다.

능동적 조절양식($\beta = .323, p < .001$)은 학교수업적응에 정

적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beta = -.158, p < .01$)과 회피-분산적 조절양식($\beta = -.247, p < .001$)은 학교수업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룹홈 청소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수업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회피-분산 조절을 하지 못할수록 학교수업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적응 정도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3)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친구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친구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는 보면 Table 11과 같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beta = .242, p < .001$)이 학교친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지추구적 조절을 잘할수록 학교친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8.9%로 나타났다.

4)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한 결

Table 10.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emotion regulation effect on class adjustment (N = 246)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B | β | R ² | F |
|--------------------|---------------------------------|-------|----------|----------------|----------|
| Class adjustment | Constant | 2.212 | | .150 | 8.460*** |
| | Gender | .107 | .105 | | |
| | Class | -.170 | -.158** | | |
| | Positive regulation | .302 | .323*** | | |
| |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 -.244 | -.247*** | | |
| | Support seeking regulation | .034 | .044 | | |

** $p < .01$, *** $p < .001$.

Table 11.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emotion regulation effect on friend adjustment (N = 246)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B | β | R ² | F |
|--------------------|---------------------------------|-------|--------|----------------|----------|
| Friend adjustment | Constant | 2.248 | | .089 | 4.692*** |
| | Gender | .011 | .012 | | |
| | Class | -.106 | -.106 | | |
| | Positive regulation | .090 | .104 | | |
| |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 -.111 | -.122 | | |
| | support seeking regulation | .173 | .242** | | |

p < .01, *p < .001.

Table 12.
Group home adolescents' gender, grade, emotion regulation effect on school life adjustment (N = 246)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B | β | R ² | F |
|------------------------|---------------------------------|-------|--------|----------------|----------|
| School life adjustment | Constant | 2.254 | | .103 | 5.495*** |
| | Gender | .073 | .074 | | |
| | Grade | -.117 | -.133 | | |
| | Positive regulation | .032 | .036 | | |
| | Avoidance-dispersive regulation | .064 | .067 | | |
| | Support seeking regulation | .169 | .226** | | |

p < .01, *p < .001.

과는 보면 Table 12와 같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β = .226, p < .01)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지추구적 조절을 잘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10.3%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룹홈 청소년이 성과 학년에 따라서 정서조절 능력이 학교적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그룹홈에 거주중인 중·고등 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홈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본 결과, 그룹홈 청소년은 1년에서 3년 미만 정도 생활하는 청소년이 109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114명(58.5%)이 친형제와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이 어려워져서 들어온 청소년이 93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룹홈에 입소하게 된 청소년이 77명(31.1%)이었다. 그룹홈 청소년들은 146명(59.3%)이 부모 모두 생존해 계신 상태였고, 부모나 친척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청소년은 175명(71.1%)이었다. 부모나 친척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

는 청소년은 71명(28.9%)이었다.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는 그룹홈 청소년 71명 중, 이유는 본인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36명(50.7%)이었다.

둘째,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이 성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분석을 한 결과, 그룹홈 청소년의 성에 따른 정서조절능력은 회피-분산적 조절양식과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에서 주 효과를 나타냈고, 학년에 따른 정서조절능력은 능동적 조절양식과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에서 주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는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에서 나타났는데, 즉,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낮아지고, 여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높아짐을 나타냈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남학생들에게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 그룹홈 청소년의 학교적응성이 성과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분석을 한 결과, 그룹홈 청소년의 성과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성은 학교환경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환경에 적응이 낮아지고, 여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환경 적응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적응을 잘하는 연구

(Yoon, 2005)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연구(No, 2005; Yoon, 2005)와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성과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성의 상호작용을 본 그룹홈 청소년의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 대상의 어려움이 있다.

넷째,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능동적 조절양식은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 능동적 조절양식이 높을수록,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능동적 조절양식은 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구, 학교생활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난 연구(Park, 2001)와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낮을수록 학교교사적응,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고, 학교수업적응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은 높을수록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지고, 수업에 집중하게 되며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게 된다.

다섯째, 그룹홈 청소년의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룹홈 청소년의 성은 학교적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학년, 정서조절능력은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적응은 성, 학년, 정서조절능력의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교사적응에서는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적응에서는 능동적 조절양식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과 회피-분산적 조절양식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친구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지지추구적 조절양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사용했으므로 연구대상자의 반응왜곡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룹홈 설문지를 종사자들이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설문에 응답했는지 알 수가 없기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현저히 적게 응답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대상 비교가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동등한 비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전국 그룹홈에 있는 800여명의 청소년 중 30%인 246명의

청소년들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그룹홈 청소년에 대한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고, 그룹홈 아동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역적 그룹홈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전국 그룹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그룹홈 중·고등학생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지만 그룹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학교적응성에 대한 연구는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있었고,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지만, 청소년 대상을 연구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정서조절능력과 학교적응성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그룹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아직까지 그룹홈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그룹홈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정서조절능력을 포함시켜 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룹홈 청소년들의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그룹홈 청소년들의 정서조절능력이 학교적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룹홈 청소년들도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적절한 정서조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그룹홈 선생님, 종사자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정서조절능력을 키워나가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도 정서조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룹홈 종사자들은 현재 청소년들의 정서조절능력을 감안하여 학교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References

- Alper, T. G., & Greenberger, E. (1967). Relationship of picture structure to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ge wo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362-371.
- Baker, D. P., & Entwisle, D. R. (1987). The influence of mothers on the academic expectations of young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how gender differences arise. *Social Forces*, 65, 67-69.
- Bea, J-H. (2003).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stress and coping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Berndt, T. J.,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f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Bizman, A., Yinon Y., & Krotman, S. (2001). Group based emotional distress: An extension of self-discrepancy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10), 1291-1300.
- Bonanno, G. A. (2001). Loss and Human Resilience.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10*(3), 193-206.
- Chae, K-L. (2004). The relationships of personality traits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Korea.
- Cho, S-M., Choi, J-B., Choi, J-H., Kwak, I-H., & Lee, S-H.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0*(9), 1144-1151.
- Chung, H-H., & Lee, K-A. (1999). Effects of Stress, Self-Esteem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1*(2), 213-226.
- Cicchetti, D. & Lynch, M. (197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 Coleman, C. C.,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405-414.
- Eisenberg, N. (2001).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Psychology, 51*, 665-697.
- Fine, M. A., Kurdek, L. A., & Sinclair, R. J. (1995). School adjustment in sixth graders: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2), 430-445.
- Foster, S. L., & Vorchach, W. L. (2003).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ization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25-638.
- Goleman, D. (1996).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271-299.
- Gross, J. J. (2001). Emotion regulation in adulthood: Timing is everyth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214-219.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of Affect, relationship,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Hwang, J-K. (1998).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Im, I-S. (2001). A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judge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Im, J-O. (2003).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emotional clarity,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Jo, S-S. (1999). A Study on the Group Homes fo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S., Lee, J-S., & Yoo, A-J. (2006).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arent attachment: Effects on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life. *The children's journal, 27*(1), 167-181.
- Jung, M-Y., & Moon, J-H. (2007).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children's journal, 28*(5), 37-54.
- Kang, K-J. (2003).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 Effectiveness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Social Adaptation of the Children in the Group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C-H., & Moon, E-S.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6*(2), 219-241.
- Kim, K-H.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s Affected by Maternal Authority and Maternal Contro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3), 187-198.
- Kim, K-Y. (1987). The relation of parental evaluation of children, self-esteem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Kim, S-H. (2002). Compar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between accommodated children and ordinary children at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buk, Korea.
- Kim, S-J. (2005).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sociali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Kim, S-K. (2004). A study on the child care of Group Home in Korea.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8*(2), 209-235.
- Kim, S-S. (1989). Comparative study on personality traits and general adjustment between institutionalized and home rearing boys and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Kim, Y-R. (1993). An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contribution variables towar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R. (2000).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A) & school-related coping scale(B) and relations between (A) & (B).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17*, 3-37.
- Kopp, C. B. (1989).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won, S-E. (2003).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Kwon, S-M., & Lee, J-Y. (2006).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Recent research trends and future research tasks. *South Korea's psychology downloads this week, 18*(3), 461-493.
- Lee, H-J.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Lee, J-Y., & Lee, K-A. (2004). The Effects of Bullying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Peer Relational Skills,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6*(2), 531-543.
- Lee, K-H., Lee, Y-A., & Shin, J-Y. (2005). The Effects of Life Meaning and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4), 1035-1057.
- Lee, K-M. (2005). A study of middle-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constructs. *South Korea's psychology downloads this week, 17*(2), 383-398.
- Lee, K-S. (2002). The difference of affect regulation style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Lee, M-H. (2002).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concept of youth in residential group care by the institutional syst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J.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motional clarity,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 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M. (1998). Sense of independence and adaptability of children under institutional care a comparative study of two groups living in institutions of different siz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Lee, Y-G. (1997). A Study on Child Abuse and Protective in Korea. *The Study of Social Welfare, 1*, 75-97.
- Lee, Y-G. (2000). A Study on Policy of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 61-74.
- Lee, Y-H. (2007).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on Middle School Students' Internet-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Min, K-H. (2000). The conceptualization and validation of emotional complexit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4*(1), 263-284.
- Min, Y-S. (1995). The effect of class and family atmosphere on the social competence of school 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Statistical data. <http://stat.mw.go.kr>.
- Mayer, J. D., & Salovey. (1990).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17*(4), 433-442.
- Moon, E-S. (2005).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6*(2), 147-162.
- Moon, Y-R. (2005). A Study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Development of Multiple Intelligences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2*(2), 1-22.
- Morris, C., & Reilly, L. (1987). Intercultural parenting and the trans cultural Family: A literature review. *The Family Journal, 18*, 324-327.
- No, H-L. (1998). A Study on the Life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Children Residing in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1), 65-92.
- No, Y-Y. (2005).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perceived by children and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Norton, R. (1981). Cecil charity house. *Feminist, 29*.
- Park, E-J. (2001). The rel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Parkinson, K. (1996). The understanding and use of counselling by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at different levels of experien. *European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31*(2), 140-152.
- Son, J-M. (2005).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regulation strategies: Cognitive reappraiser vs. emotion suppress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Suh, E-H. (2003). The relationship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motional awareness clarity,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Westen, D. (1994).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affect regulation: Applications to social-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62*(4).
- Yoo, K-S. (2001). A comprative study on the behavioral characters of the general and the accommodat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Yoon, E-Y. (200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Korea.
- Yun, S-B. (1999).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types and antecedents of experienced emotions on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접 수 일 : 2011년 9월 15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2월 3일